

람사르 협약이란?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합니다.

1971년 이 란의 람사르라는 도시에서 채택되었으므로 '람사르 협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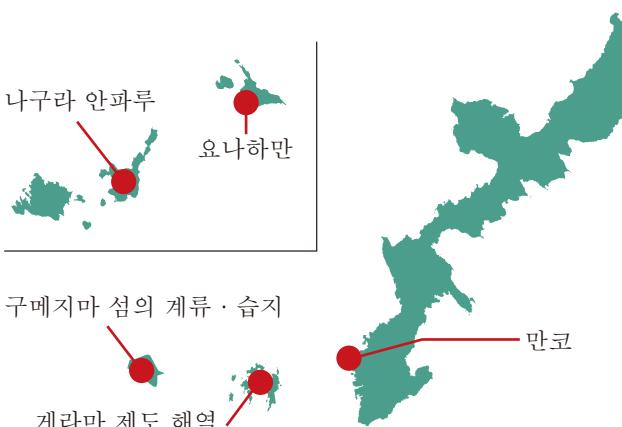
람사르 협약은 단순히 '물새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습지 보전'을 위한 협약이며, '현명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람사르 협약은 '사람과 생물이 물가에서 활기차게 생활한다', 그런 당연한 행복을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현대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만코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도요새·물떼새 종류의 중요한 도래지로서, 또 많은 물새 등의 서식지로서 중요하다는 이유로 1999년 5월 일본에서 11번째 (오키나와현에서는 최초)의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오키나와현에는 만코를 비롯하여 2012년 8월 현재 5개의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하 버스 터미널에서 자동차로 7분
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오노야마공원역에서 도보 15분



만코 물새·습지 센터

(우)901-0241
오키나와현 도미구스쿠시 아자 도미구스쿠 982
전화: (098) 840-5121, 팩스: (098) 840-5118

- 개관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무료)
-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연말 연시 (12/29~1/3), 위령의 날 (6/23)
- 단체 이용의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십시오.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만코

Manko Waterbird and Wetland Center

만코 물새·습지 센터



만코와 만코 물새·습지

만코?



옛날의 만코는 마치 호수처럼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류큐왕조 시대에는 '대호수'로 불리기도 했지만, 17세기 중반에 만코를 찾은 중국의 사신이 '만코'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웅대한 풍경은 구로부네로 유명한 페리 제독과 중국 사신들로부터 절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1950년대 중반 무렵의 만코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고 어업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매립 등에 의해 급격하게 간석화가 진행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페리 등이 절찬한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간조 시에는 최대 47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진흙질 간석지가 나타납니다.

간석지와 맹그로브 숲 속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새들은 간석지의 치어나 게, 갯지렁이 등을 잡아 먹고 있습니다. 먹이가 되는 치어나 저생생물이 풍부한 만코는 물새들에게 중요한 도래지이자 이동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가리나 대백로와 같은 대형 백로 종류와 검은가슴물떼새, 노랑발도요, 청다리도요와 같은 도요새·물떼새 종류를 중심으로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희귀한 새들도 찾아옵니다.

만코는 물새와 생물들의 도시 오아시스

만코 물새·습지 센터에서 그 매력을 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코 물새·습지 센터는
‘물새와 습지와 사람을 이어주는 장소’

만코 물새·습지 센터는 물새와 습지와 사람을
이어주는 장소’로서 2003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전시와 자연관찰회 등을 통해 센터를 찾는
분들에게 만코의 자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 도

맹그로브와 그곳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베스트 포인트



상설 전시실

센터에서 간석지의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대형 라이브
영상과 생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터치 패널, 만코의
생태계를 나타낸 디오라마 등, 만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찰 전망실



망원경(20배~60배)이 상비되어 있습니다. 망원경을 들여다
보면 눈앞으로 만코의 대 파노라마 풍경이 펼쳐집니다.